대한예수교장로회
밴쿠버장로교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결혼 준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1항에 따르면, 결혼예식은 서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예배행위'입니다. 즉, 결혼 예식은 교회의 행사이고 교회의 감독 아래서 시행되어야 하며 시간이 허락되는 한 모든 교우(자녀포함)들이 참석해야 합니다. 결혼예식은 다음의 절차를 밟아 진행합니다.

1) 결혼 청원
결혼하고자 하는 성도는 교회 앞에 결혼 허락을 요청해야 합니다(결혼청원서, 부모동의서). 그리고, 당회는 결혼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살피고, 이 결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확인합니다.
예)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인지, 근친간의 결혼이 아닌지, 세례 받은 신자 사이의 결혼인지, 부모의 동의를 받았는지.

2) 결혼 준비
당회는 교회 앞에 결혼 청원 공지를 내고, 회원들에게 이 결혼에 대한 정당한 반대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당한 반대가 없다면, 두 사람은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결혼 예식을 준비합니다(주 교재: 이혼, 원제: '결론' -데이비드 엥겔스마). 그리고, 결혼 3주전, 교회는 공식적으로 결혼 예식을 공지하고 교회에서 청첩장을 나눠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3) 혼인서약
서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써 나눌 때까지"입니다. 즉 혼인을 나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이십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가증한 단어를 입에 올려서는 안됩니다. 이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나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 같이 아내는 남편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등주의'에 맞서서 우리는 성경적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서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다 두려운 마음으로 혼인 서약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의 하나됨은 인간의 열정과 사랑이 아니라 서약에 대한 신실함을 통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혼인서약 내용> -추후 알림

4) 축의금

결혼은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회원 누구라도 축의금을 낼 수 없어서 결혼 언약의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원리에 따라 재정부는 회원들에게 축의금을 모아서 '교회의 이름' 으로 신랑/신부에게 동등하게 전달합니다. 혹 참석자가 많아서 양가 부모님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기에 축의금 비용이 식대비보다 부족할 경우 교회에서 재정으로 100% 지원합니다. 이로써 온 성도가 함께 누리는 혼인 잔치의 기쁨이 방해 받지 않도록 교회가 금전적인 책임을 집니다.